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신안군, 테마형 수학여행지로 인기

신안군의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며 8개 학교에서 1,000여 명의 학생이 신안을 방문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여가 있는 삶의 일환으로 증도와 입자도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 프로그램을 기획, 인센티브와 함께 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학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센티브는 당일 5,000원, 숙박 10,000원, 체험프로그램은 갯벌 카약 투어 5,000원, 승마체험 12,500원, 드론/IT체험 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이자 한국관광 100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한 타이틀이 붙은 증도는 갯벌과 천일염 등을 소재로 한 학습

### 해변승마·갯벌카약·드론·천체 관측까지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체험비 50% 파격 지원



과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휴가철 가고 싶은 섬, 명사80리 대관해수욕장, 톨립축제로 잘 알려진 입자도의 갯고랑 카약 투어, 해변 승마와 드론 체험은 타 지역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어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 관광지로 잘 알려진 증도와 입자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활기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 예산을 늘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도는 한국관광 100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고, 입자도는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에 선정되었다.

### 고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고흥군은 5월31일 군 기관단체장, 지역 언론인, 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안전을 책임질 '고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민 안전을 위한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을 가진 고흥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군 청사 6층에 430㎡(130평) 규모의 총사업비 14억5,400만원(국비17억2,700, 도비2억300, 군비14억7,500, 교육청 4,900)을 투입해 통합관제센터,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관, 전문 관제요원 등 25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지금 까지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인 500여대의 CCTV 영상을 통합관제 함에 따라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영광군, 모시잎송편 업체 대상 떡 상품화교육 호응

영광군은 다양한 떡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0회 22명의 관내 떡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 퓨전 떡 요리 전문업체 참세방이안 조정희 본부장을 강사로 모시고 지리적표시품인 영광모시잎송편과 함께 상품화가 가능한 퓨전 떡류(모시잎찰떡, 삼색찰편, 보리미네이크 등) 20여종을 배우는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영광모시잎송편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하고 새로운 떡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퓨전 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응용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미 지난 2년간 떡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서 업체의 기술 향상과 영광모시잎송편 지리적표시품과 함께 다양한 떡 상품화로 떡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떡 전문가 양성교육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번째 추진했으며, 떡 산업 육성을 위해 영광모시잎송편 명품화 및 새로운 떡 상품을 개발하도록 앞으로 매년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장성군-학사농장 업무 협력 본격화

장성 귀농인 농특산물 연중 판매...매달 직거래 장터 운영도

장성군과 학사농장의 업무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성군 귀농인들이 광주에서 장성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학사농장 직영매장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장성군귀농인협의회 회원 12명은 1일부터 2일까지 광산구 수완지구에 위치한 학사농장 직영매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사과, 딸기, 표고버섯, 귤, 아로니아 등을 판매한다.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 조직인 학사농장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농조합법인이다.

학사농장의 뿌리는 장성이다. 전남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강용(51) 학사농장 대표는 1992년 장성에 정착한 후 친환경 농업을 전격 도입한 학사농장을 설립했다. 강 대표는 이후 광주에 직영매장을 잇따라 설립하는 등 연 매출

70여원을 올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학사농장을 키웠다.

장성군은 2016년 학사농장과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해 귀농·귀촌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및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성군은 학사농장 수완지점에서 귀농인들의 농특산물을 연중 판매하고 매달 2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학사농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고 한다"라면서 "귀농·귀촌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례군, '산촌생태마을 주민 교육' 추진

산동면 정산마을서 주민 소득증대 위한 교육 열려



구례군은 지난달 29일 산동면 정산마을에서 마을주민 등 20여 명이

대상으로 '산촌마을 주민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교육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하고 있는 산촌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소득 사업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산촌마을의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실질적인 산촌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산촌 체험관을 운영 중인 산동면 정산마을은 신수유 마을이 인접해 있는 산림 관광지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산촌마을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보성군,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보성군은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은 경영행정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기준 제시와 차별화된 고객민족을 안겨주는 인물·기업·기관 등을 선정했다. 보성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로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여 지방세 수입 800억원 달성이라는 경영행정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도시지역에 비해 공시지가가 저렴한 지역 내 유휴주차장, 폐교부지 등 공유지 28만㎡를 영입용 렌터카 차고지로 확보하여 연평균 2만대 이상, 총 8만여대의 렌터카를 등록했다.

2014년 21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시작으로 2015년 194억 원, 2016년 250억 원, 2017년 700억 원, 2018년 5월에는 800억 원을 달성했으며, 1대당 99만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했

다. 확보한 세수로 보성국민체육센터 건립 48억 원, 버영안정직불금 지원 32억 원, 버 육묘용 상토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21억 원, 마을 상하수도정비 15억 원,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53억 원, 재해위험지역 안전시설 확충 50억 원 등 총 31개 사업에 299억 원을 재투자하여 주민복지 및 일자리창출,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농협소유 부지와 폐교부지 등 12만㎡의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40만㎡의 차고지에 10만대 이상의 렌터카가 등록될 경우 취득세, 등록수수료, 임대료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된다.

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유원호 군수 권한대행은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를 위해 도입한 렌터카 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군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보성 건설을 위해 민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